

#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 상환한 282만명 '신용사면'

### 금융위 신용회복 지원 조치...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 단축 개인사업자 31만명도...신용평점 올라 신용카드 발급 등 가능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최대 298만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했던 개인은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이들 중 연체를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오르고 1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대상자들인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아울러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자주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변제 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는데, 이날부터는 1년간 성실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꼬리표'를 떼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고금리·고불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분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자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분들의 새 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경우)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획을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조현상 효성 부회장, 대한상의 한·베트남 경협위원장 위촉

### "양국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조현상(사진) 효성 부회장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한·베트남 경협위원회는 1992년 양국 수교 직후 양국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투자와 무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상의와 베트남 상공회의소가 공동 설립했다. 설립 이후 위원회는 양국 기업인이 참여하는 합동회의, 사절단의 상호 방문, 주요 인사 교류 등을 통해 민간기업과 정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양국 간 민간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조현상 부회장이 위촉장을 받고 있다. 효성은 2007년 베트남에 진출, 총 36억달러(약

베트남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한국의 3번째 교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은 베트남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로, 현재 8800여개의 기업이 베트남에 4조8000억원)를 투자해 현지에서 9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하노이와 평남성, 호찌민 등 베트남 전역에서 타이코덱스, 스파덱스, 폴리프로필렌, ATM 기기 등을 생산해 베트남의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탄소섬유 공장 건립도 추진 중이다. 조현상 신임 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도약하는 베트남은 한국과 상호보완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며 "한·베트남 경협위가 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미래의 협력 방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진출 기업, 정책당국과 폭넓은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기자노트 제25대 광주광역시에 거는 기대



김민석  
경제부 기자

오는 20일 치러지는 제 25대 광주광역시의회 선거에 두 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18년 만의 경선이 성사됐다. 경선이기도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광주시장의 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과열되고 있다. 지금까지 없었던 출마 기자회견과 공약집 배포만 보더라도, 두 후보자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는지 피부로 와 닿는다. 하지만 정책 대결이나 경영 철학 등의 후보간 건전한 경쟁은 사라지고, 이전 선거들과 마찬가지로 '금권(金權)선거', '줄 세우기' '야합' 등이 또다시 선거판을 얼룩지게 만들고 있다. 지역 경제에 대표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어느 후보가 대표로서 적합한 지를 평가하거나 토론하는 건전한 분위기 대신 투표권을 얻기 위해 특정 후보 쪽에서 큰 돈을 썼다는 소문, 줄 세우기가 이미 끝났다는 등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지역 경제에 수장을 뽑는 선거가 마치 정치인 뽑는 선거인양 혼탁해지는 예기들이 나뉘면서 대다수 경제인들이 자조감을 느끼고 있다. 올해 광주시장의 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

요하다. 최근 수년 간 국제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지역경제는 한층 침체에 빠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고 견인해야 할 광주시장의 존재감이 너무나 미미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장의 지역 경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실상 무관심한 동안 기반이 약화된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사정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악화 되고 있는 지역 경제 상황을 감안해, 광주시장의 하루 빨리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록 상의 회장 선거에 걸맞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상의 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제계는 두 후보자 간의 정당당한 경쟁을 바라고 있다. 또 두 후보자 모두 당선 시 그동안 폐쇄로 지적돼온 금권선거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이번 선거 뒤 그리고 앞으로의 상의 회장 선거에서도 갈등과 회합이 탈이라는 후유증이 사라지길 기대해본다. 이번 후보자가 당선되든지 제 25대 광주시장의 지역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mskim@kwangju.co.kr

## 보해양조 복분자주·매취순 세계 각국 바이어들 러브콜

### 식품 박람회 '푸드엑스 재팬' 참가 포장마차 콘셉트 홍보관 '주목'

보해양조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 식품박람회에서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보해양조는 12일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푸드엑스 재팬(FOODEX JAPAN)'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푸드엑스 재팬은 전 세계 주류 업체와 커피, 음료 업체 등 80여개국 8만여명이 참여하는 세계 3대 식품 박람회 중 하나다. 보해는 이번 박람회에서 포장마차 콘셉트로 홍보관을 꾸며 큰 주목을 받았다. 보해가 일본 내 한류열풍으로 일본 내 MZ세대 사이에서 한국 스타일의 포장마차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이같은 홍보관을 선보이게됐다고 보해는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생겨난 '집에서 이자카야(おうち居酒屋)'라는 일본의 새로운 혼술 문화에 어울리는 복분자주와 매취순을 이용한 하이볼 레시피를 소개했다. 박람회 기간 보해양조를 향한 현지 바이어들의 러브콜도 이어졌다. 일본 바이어들은 해섭(HACCP), ISO9001 인증을 획득한 보해의 품질, 기술력에 큰 관심을 가졌고, 복분자주, 매취



이날 초 일본 도쿄에서 열린 '푸드엑스 재팬(FOODEX JAPAN)' 내 보해양조 홍보부스를 찾은 타국가 바이어들이 보해 제품을 들어보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순, 과일소주, 순회 막걸리 등 다양한 제품군을 눈여겨 봤다. 몽골 바이어들은 일본 수출용 제품인 과일맛 '잇새주' 시리즈의 몽골 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보해는 다양한 주종을 보

유하고 있는 만큼 여러 방면으로 해외 시장 소비자 니즈에 다가가 수출 성과를 올려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박람회에 꾸준히 참가해 보해를 알리며 글로벌 주류전문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은행 광주FC 선전 지원 광주FC적금·체크카드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광주FC의 선전을 지원하기 위해 파키지 상품인 '광주FC적금'과 '광주FC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광주FC의 메인스폰서인 광주은행은 '광주FC 응원'이라는 테마로 두 상품을 출시했으며,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과 이정호 광주FC 감독이 상품 1호 가입자로 나섰다. '광주FC 적금'은 오는 8월30일까지 판매하는 1년제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5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정액적립식 연 3.5%(자유적립식 연 3.2%)이며, 우대금리 최대 연 0.9%p를 더해 최고 연 4.4%(자유적립식 연 4.1%)까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광주FC K리그 성적에 따른 우대금리 최고 연 0.3%p(1-2위 연 0.3%p, 3-4위 연 0.2%p, 5-6위 연 0.1%p) ▲광주FC 홈구장 방문 인증 횟수에 따른 우대금리 최고 연 0.4%p(1회 연 0.2%p, 2회 연 0.4%p) ▲제휴상품인 '광주FC체크카드' 10만원 이상 사용 시 연 0.2%p가



제공된다. '광주FC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면제이며, 주요 혜택으로 ▲광주FC 홈경기 입장권 40% 할인 ▲광주FC가 챔피언스필드 입장권 2500원 할인 ▲광주FC패밀리랜드 자유이용권 50% 할인(동반 1인)이 있다. 기본 캐시백 혜택은 ▲모든 업종 이용금액 0.2% ▲제과점·편의점 이용금액 0.4% ▲전국 주요 소 이용 시 1ℓ당 50원 ▲전국 영화관 이용 시

건당 2000원 ▲스타벅스·탐앤탐스·카페베네·엔제리니스 이용 시 건당 1000원을 제공한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광주FC가 지난해 좋은 성적을 내며 지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K리그 시즌에 발맞춰 스포츠 마케팅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 스포츠클럽의 영역을 확대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광주정보문화진흥원 광주시장과 현장대화

### 꿀잼도시·시민 서비스 방안 논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진흥원)은 강기정 광주시장에 참여한 가운데 광주실감콘텐츠큐브에서 '공공기관 현장 대화'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광주시는 올해 공공기관 혁신 2단계에 돌입하면서, '광주시-공공기관 동행 전략'을 내세워 각 시장이 직접 각 기관 직원들과 현장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 대화는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문화재단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강 시장은 진흥원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실무직원 10여명과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주제로 광주시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꿀잼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시민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시민들이 일상 속 문화도시 광주를 체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광주시와 진흥원은 협업사업으로, 광주시 주요 공공장소에 '지역 창작 캐릭터IP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을 추진해 캐릭터IP 기반 도시브랜드를 구축



하기로 했다. 또 진흥원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실시간 웹툰을 제작해 행사를 기념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광주실감콘텐츠 큐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등 광주만의 스토리가 풍부한 도시인만큼, 스토리들을 엮어 광주민의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진흥원의 역할이다"며 "빛나는 아이디어를 통해 문화 중심도시 광주로 가는 길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4월까지 11개 기관 및 공공기관들과 '현장 대화'를 추진하며, 진흥원에 이어 네 번째 순서로 광주경제진흥원생생일자리재단을 방문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 소비 촉진 '봄빛 동행축제'...중기부, 참여기업 300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까지 중소기업육성센터 판로 정보 플랫폼 '판판대로'를 통해 올해 첫 동행축제인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300개 기업을 선정해 동행축제 행사 기간 온오프라인 전용 기획전 등 판촉 기회와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공개모집(200개)과 추천선발(100개)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 기업을 선정한다. 공개모집은 지난해처럼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 받고 추천선발은 각 유망·지방중소벤처기업청·유관기관 추천을 받아 상품기획자(MD) 등 민간 전문가가 시장과 상품 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내수 진작 행사로 지난해 5월과 9월, 12월 세 차례 열렸다. /김민석 기자 mskim@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코스피        | 2681.87(+21.97) |
| ↑ 코스닥        | 889.71(+13.78)  |
| ↓ 금리(국고채 3년) | 3.273(-0.002)   |
| ↑ 환율(USD)    | 1311.00(+0.70)  |